

제 1 편 수원의 자연환경

제 1 장 위치 및 면적

1. 위 치

수원시(水原市)의 위치는 반도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경기도의 중남부에 해당한다. 동쪽은 용인군 수지면과 기흥면에, 서쪽은 화성군 반월면과 매송면에, 남쪽은 화성군 태안면에, 북쪽은 의왕시에 각각 접 하고 있다. 수원시의 위치를 경위도로 표시 해 보면 아래와 같다.

수원시의 사극(四極)

방향	구분	지 명	극 점
극 동		수원시 장안구 하동	동경 127° 05'
극 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동경 126° 56'
극 남		수원시 권선구 대왕교동	북위 37° 13'
극 북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북위 37° 21'

수원시청 소재지의 위치는 동경 127°02', 북위 37°16'이다. 동경 127°선(자오선)은 경기도의 중앙경선(中央經線)에 해당 한다. 이 자오선은 표준시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 나라는 현재 국제적 관례를 따라 동경 135°선을 표준시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한때는 수원·서울을 관통하는 동경 127°선을 기준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위도상의 위치는 일종의 기후대로도 표시된다. 한국은 중위도 북온대에 속하는데 위의 표를 통해 볼 때 수원은 반도의 중심을 이루는 경기도에서 남쪽으로 약간 처져 있다고는 하나 거의 중간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면 적

수원시의 면적은 총 105.55km²이며 행정적으로는 51개의 법정동과 29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다.

제 2 장 지형 및 기후

1. 지 형

수원의 지형을 보면 대체로 동북에서 서남 방향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주형(舟形)의 소 분지이다. 주형이란 말이 가르키듯이 동서 간의 폭 보다는 남북 간의 폭이 훨씬 커서 지역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길쭉한 배(舟)의 평면도를 연상시킨다. 아울러 수원시는 북·동·서 3면이 광고산맥에 에워싸인 채 남쪽만이 넓은 평야지대로 열려 있어 일종의 계곡 위에 올라 앉은 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광교산맥의 주봉은 광교산으로 수원시의 북변(北邊)에 위치해 있다. 광교산은 정상的高度가 해발 582m로서 산의 자태(姿態)나 규모는 한수 이남 경기도에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산이다.

광교산맥은 동으로는 성남시를 거쳐 과천의 청계산에 이어지고 북으로는 백운산(560.8 m)을 연하여 광주의 고분현(古分峴)에, 동남으로는 용인군 수지면 일대에, 서로는 의왕시 일대에 그 지맥이 닿아 있다. 또 남으로는 광교산 바로 턱 밑에 형제봉(448.1m)을 두고 윗광교(上光教), 아랫광교(下光教)의 두 골짜기를 이루면서 마치 양팔로 수원시를 껴안은 듯한 형국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 시가지 중앙에는 해발 128m의 팔달산이 솟아 있다.

원래는 남탑산(南塔山)이라고 불렀는데 조선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사통팔달의 형세를 이룬 곳이라 하여 팔달산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팔달산 서북의 화서동에는 해발 123.3 m의 숙지산이 있고 또 서쪽 서호 부근에는 해발 104.8m의 여기산이 있다. 이들 몇 개의 나지막한 야산을 끼고 시의 남쪽 및 동남쪽에는 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각종 농산 및 원예업이 발달하고 있다.

수원은 주위에 높거나 험한 산이 별로 없고 남쪽에 넓은 평야가 연결해있는 유리한 지세 때문에 옛부터 교통의 요지가 되어 왔다. 용인, 이천, 여주로 통하는 육로의 기점이 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분기하는 곳도 바로 수원이다. 조선시대에도 수원은 부산과 목포 방면에서 올라오는 관도(官道)의 요충이었고 더우기 서남 쪽으로는 남양만 까지 끼고 있어 육·해 양면에서 수도를 방위하는 요지로 인정되고 있었다.

한편 수원의 지질은 경기도의 다른 지방이 대개 그렇듯이 역질양토(礫質壤土)의 화강암(花崗岩)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이 화강암류는 대체로 조립상(粗粒狀)이고 그 풍화토양(風化土壤)도 다량의 석영사립(石英砂粒)을 함유하고 있어 쉽게 붕괴·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암석에서 생성된 토양은 비교적 점토(粘土)가 적고 사립(砂粒)이 많은 반면, 그 이화적(理化的) 성질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모든 농작에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기 온

수원은 온대성기후대(溫帶性氣候帶)에 속 한다고는 하나 위도상 북부의 순대륙성기후와 남부의 해양성기후가 만나는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덥고 습기가 많은 반면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하다. 한마디로 일교차가 꽤 큰 편에 속하는 것이다.

수원은 위도상 우리 나라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후값이 대체로 중간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의 한 구성요소인 기온도 중간성으로 나타난다.

지난 10년간의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평균 -5.6°C , 가장 더운 달은 8월로 평균 26.0°C 이다. 이로 보아 수원지방은 한 서의 차가 꽤 큰 곳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데 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기온 조건은 아니다.

3. 강수량

기후의 요소 가운데 강수량은 기온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강수가 농업, 식수, 수력 발전 등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은 다우지에 속하는 한강 유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볼 때 강수량이 제법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수원시의 강수량은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벼농사 및 기타 작물재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벼농사의 경우는 생육기간 중 적어도 1,000mm 이상의 강수량과 3,000°C의 열적산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원시의 강수량과 기온은 대체로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편이다. 더우기 강수량의 대부분이 벼의 본격적인 생육기간인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 수원시의 강수량

(단위 : mm)

년도 및 월별	구분	강 수 량
'85		1,491.0
'86		1,144.7
'87		1,439.1
'88		849.8
'89		1,261.9
1 월		61.0
2 월		35.0
3 월		126.8
4 월		10.0
5 월		37.7
6 월		162.7
7 월		192.5
8 월		276.1
9 월		139.6
10 월		43.0
11 월		116.5
12 월		61.0

4. 바 람

우리나라 국토의 전부가 그렇듯이 수원의 바람도 역시 계절풍이 주종을 이룬다. 겨울철에는 주로 대륙 쪽에서 북서계절풍이 많이 불어 오는데 이 바람은 매우 한랭 건조하여 맑은 날씨를 가져 오게 하는 대신 심한 추위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서계절풍은 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9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한 고비를 이룬 뒤 3월경에 끝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여름철에는 해양에서 대륙 방면으로 남동계절풍이 분다. 남동계절풍은 많은 습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의 도래와 결정적인 함수관계를 갖는다. 이 계절풍은 4월에 시작되어 6~7월에 가장 심하고 8월이 되면 끝나는게 보통이다. 물론 이들 양 계절풍이 위와 같이 철을 따라 정확하게 교대하는 것은 아니며 수원의 경우는 년중 대체로 북서 계열의 바람이 더 많이 부는 편이다.

이밖에 수원에는 국지풍으로써〈높새〉란 이름의 동풍 혹은 북동풍이 불어 오기도 한다.

이 바람은 늦여름에 오오츠크해에서 발원한 고기압이 동해 방면에 오래 머문다든가 일본 남해상에 태풍이 내습할 때 그 고기압권에서 태백산맥을 향해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으로 '7월 동풍이 벼를 말린다'는 말처럼 생육기의 벼에는 몹시 해를 준다. 다행히 수원지방의 경우는 영서지방에 비해 피해가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다.

5. 날씨 및 안개

맑은 날이란 일평균 구름량이 2.4이하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수원시의

맑은 날 평균일수는 98일로 이는 1년 전체일수(365일)의 27%에 불과한 것이다. 흐린 날은 일평균 구름량이 7.5이상인 경우인데 평균일수 106일은 1년 전체일수의 29%가 된다.

한편 안개란 시정거리가 1km내외에 그치는 날씨를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관측지점에서 1,000m 이상의 전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를 안개가 끼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안개일수는 약 20일인데 이들 안개의 대부분은 복사무(輻射霧)이다. 그러나 해안지방은 해무현상(海霧現象) 때문에 안개 끼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수원시의 안개 낀 날은 년중평균 42일로 전국 평균일수의 두 배가 넘으며 바닷가인 인천직할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수원시가 서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해 있는 데다 시 일원에 호수등 내수면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수원시의 년평균 일조시간은 2,384.1시간으로 하루 평균 6.5시간 정도이다. 일조시간은 시의 면적이 커지고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이 상례인데 수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몇년에 걸쳐서는 하루 평균 6시간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1일 평균 일조량은 318.1Cal/cm²이다.

6. 계절

수원시의 경우 첫서리는 대개 10월 10일에서 15일을 전후해서 내린다. 70년대를 통해 가장 빨랐던 첫서리 기록은 1973년의 10월 4일, 가장 늦었던 기록은 1975년의 11월 11일이다. 서리는 대개 4월 중순 경이면 끝나게 되나 해에 따라서는 5월 초까지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78년의 마지막 서리 내린날(終霜日)은 5월 11일이었다.

첫눈은 첫서리보다 한달 남짓이 늦어 대개 11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내리게 되는데 빠른 해에는 10월 25일 경에 내리는 적도 있었다. 마지막 눈 내리는 날(終雪日)은 대개 3월 중순 무렵이 된다.

계절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또 결빙현상(結氷現象)이 있다. 기상학에서 결빙이라고 하면 노천에 설치해 놓은 동계증발계(銅製蒸發計)내의 청수(淸水)가 동결(凍結)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리, 눈 따위와 같이 해(年)나 지역에 따라 첫얼음이 어는 시기도 달라지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 평균 첫 얼음 어는 날은 10월 15일에서 20일을 전후해서이고 평균 마지막 얼음 어는날은 4월 초순경이다.

수원시의 서리·눈·얼음

년도	구분	서 리		눈		얼 음	
		최초월일	최종월일	최초월일	최종월일	최초월일	최종월일
1970		10.27	·	11.25	·	10.27	·
1971		10.12	4.21	11.29	3.31	10.12	4.10
1972		10.12	4.6	11.20	3.16	10.22	4.6
1973		10.4	4.1	11.17	3.2	10.14	4.11
1974		10.10	4.13	11.23	3.6	10.16	4.12
1975		11.11	5.4	11.24	3.23	11.1	4.9
1976		10.25	4.11	11.17	3.24	10.25	4.4
1977		10.11	4.24	11.29	3.10	10.16	4.8
1978		10.11	5.11	11.29	3.10	10.16	4.22
1979		10.10	4.18	11.28	3.24	10.12	4.18

여 백

제 2 편 수원역의 연혁 및 인구의 변천

제 1 장 연 혁

제 2 장 인구의 변천